

디지털을 활용한 新 금융상품 개발 사례와 시사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BM혁신연구실

2020. 11. 06

-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금융회사는 새로운 방식의 투자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기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투자영역을 대중화할 수 있게 됨
- 새롭게 나타난 금융상품의 사례에는 ①결제와 투자를 결합한 잔돈금융, ②소액·분할매수 상품, ③장외 주식거래 플랫폼, ④가상화폐 투자 관련 플랫폼 등이 있음
 - [①결제와 투자를 결합한 잔돈금융] 핀테크 업체 티클과 Acorns는 카드 결제 시 잔돈을 자동으로 저축하여 투자까지 연결하는 잔돈금융 서비스를 제공
 - [②소액·분할매수 상품] 신한금융투자와 미국 디지털증권사 Robinhood는 주식 분할매매 서비스, 부동산 핀테크 업체 카사코리아는 부동산 소액 투자플랫폼을 출시
 - [③장외 주식거래 플랫폼] 핀테크 업체 두나무와 TD Ameritrade는 비상장주식을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거래플랫폼을 개발
 - [④가상화폐 투자 관련 플랫폼] 핀테크 업체 크로스앵글은 가상화폐 통합 정보공시 플랫폼을, 핀테크 업체 B21은 통합 가상화폐 자산관리 플랫폼을 출시
- 국내외 사례에서 이종 서비스 결합, 거래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고객층을 확장하고 새로운 투자영역을 개척한 것처럼, 우리금융은 그룹 내 포트폴리오를 고려하면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적극 발굴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

작성자 : 김수정 선임연구원 (02-2173-0564)

책임자 : 김진선 실장 (02-2173-0504)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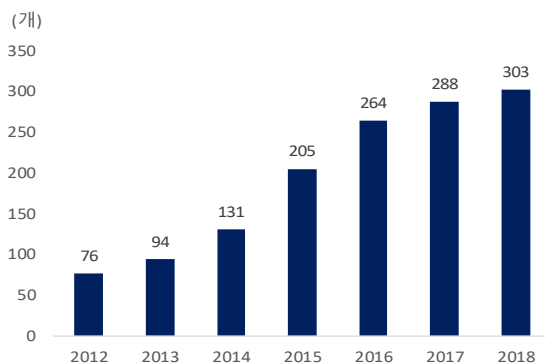
■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금융회사는 새로운 방식의 투자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핀테크 업체의 빠른 성장으로 혁신적인 상품 개발이 가속화됨

- 소액투자가 어려웠던 상품을 디지털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신규 투자영역에서 정보 투명성을 높여 거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음
- 금융위는 2019.4월 규제 샌드박스¹⁾ 제도를 도입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신사업이 규제의 제약없이 육성되고 시장에 도입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2019.4월부터 2020.10월 말까지 총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국내 핀테크 기업 수는 2012년 76개에서 2018년 303개로 4배 이상 증가하여 경쟁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상품 출시 기반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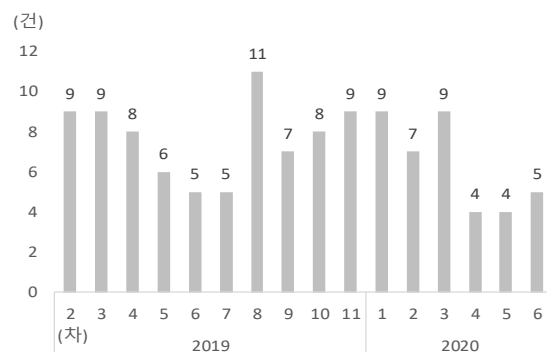
■ 혁신적인 금융투자 상품은 밀레니얼 고객, 소액투자자 등으로 고객층을 확대할 뿐 아니라 대체투자, 가상화폐 등 기존에 접근이 어려웠던 투자영역을 대중화하는 효과가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디지털을 활용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을 시장에 선보인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국내 핀테크 업체 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



자료: 금융위원회, 삼성KPMG

주: 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부터 서비스 지정 시작
자료: 금융위원회

1)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출시될 때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2016년 영국이 금융분야에서는 최초로 도입하였고 전세계 20여개국에서 도입 또는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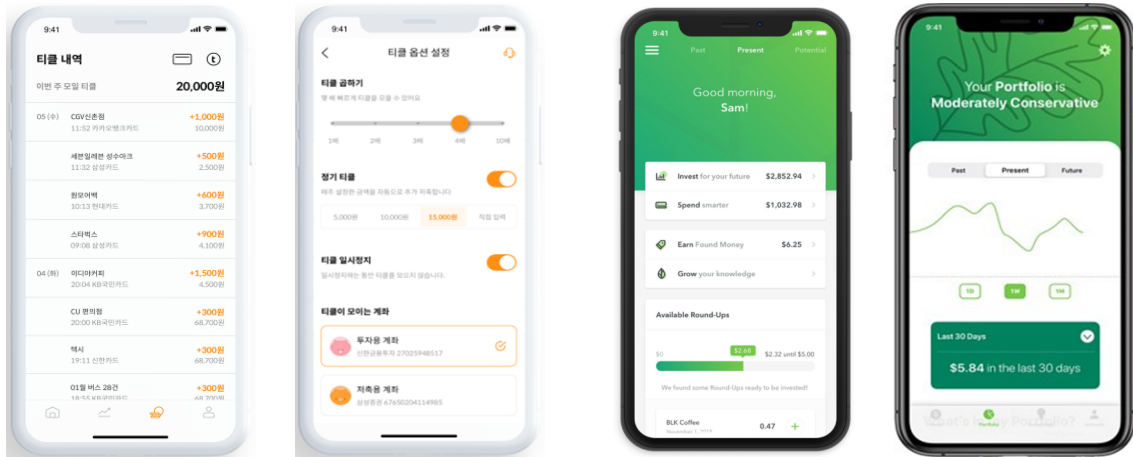
2. 新 금융상품 사례

■ 디지털을 활용하여 새롭게 개발된 금융상품의 사례에는 ①결제와 투자를 결합한 잔돈금융, ②소액·분할매수 상품, ③장외 주식거래 플랫폼, ④가상화폐 투자 관련 플랫폼 등이 있음

■ [①결제와 투자를 결합한 잔돈금융] 카드 결제 시 잔돈을 자동으로 저축하여 투자까지 연결하는 서비스로 일상소비와 금융투자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국내 핀테크업체 티클은 신용카드를 티클앱과 연동하면 해당 카드로 결제 시 1,000원 이하의 잔돈을 제휴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송금하는 서비스를 제공
 - * 예를 들어 2,450원을 결제하면 3,000원에서 거스름돈 550원이 자동 저축
 - 일주일 단위로 생성된 잔돈을 모아 투자계좌로 자동이체하며, 앱 내에서 증권사 계좌의 투자현황과 수익성 등을 확인 가능
 - 카드지출로 생성된 잔돈의 2배~10배를 저축하는 기능, 목표금액과 기간을 설정해 저축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기능 등 사용자의 저축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추가
- 미국 핀테크업체 Acorns는 잔돈금융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시행한 대표적인 회사로 자동저축부터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플랫폼 내에서 이용 가능
 - 앱과 연동된 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1달러 미만의 잔돈을 적립하고 잔돈이 최소 5달러 이상 누적되면 투자계좌로 이체
 - 자체적으로 주식, ETF 등으로 구성된 5가지 투자성향별 포트폴리오* 제공
 - * 포트폴리오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Harry Markowitz)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에 의해 개발
 - 월 1달러의 이용료로 잔돈투자과 제휴업체 캐시백 기능*을 기본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고, 월 3~5달러의 추가 이용료를 지불하면 사용할 때마다 보너스 금액이 투자되는 자체 체크카드, 퇴직연금계좌(IRA) 등을 제공
 - * 350여개의 제휴업체(월마트, 나이키 등)에서 앱과 연동된 카드로 구매할 경우 자동으로 금액의 일부를 투자계좌에 입금(cash back)하는 서비스 (Found Money)
 - * * 국내 업체 티클은 이용수수료가 없음

티클 및 Acorns 앱 (예)



자료: 각 사 홈페이지

■ [②소액·분할매수 상품] 주식 소수점(분할) 매수, 부동산 소액 간접투자 등을 통해 고액투자자뿐만 아니라 20~30대 젊은 연령층을 포함한 소액투자자까지 타겟 고객층을 다변화

- 신한금융투자는 미국주식 300여개 종목을 소수점 이하 두자리수(0.01)까지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는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시행
 - 2019.7월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하여 자본시장법 상 구분예탁·계좌구분개설 의무*의 적용을 면제하면서 국내에 소수점 단위 주식 매매가 도입
 - * 자본시장법 상 증권사는 고객과 회사가 소유한 주식을 구분해서 예탁하고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하나, 고객이 소수점 이하 주식거래 시 나머지 주식을 증권사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예: 고객 소유 주식이 10.76주일 경우, 증권사가 나머지 0.24주를 보유)
 - 주당 가격이 높아 접근하기 어려웠던 해외주식*을 소액투자자도 쉽게 매매할 수 있어 소액으로도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투자경험과 예산이 적은 20~30대 젊은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주식투자를 활성화
 - * 해외 주요주식 가격('20.10.30일 기준): 아마존 3,211달러, 구글 1,567달러, 테슬라 410달러, 마이크로소프트 204달러, 애플 115달러
 - * * 금융위는 해외주식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된 분할 거래방식을 국내 주식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20.8.20일 샌드박스 연계 규제개선 방안)
- 부동산 핀테크업체 카사코리아는 기존 극소수의 자산가만이 투자할 수 있었던 상업용 부동산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플랫폼을 출시²⁾

- 상업용 부동산 지분에 투자하는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DABS)³⁾은 최소 5,000원부터 매수할 수 있으며, 플랫폼 내에서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
- 카사의 DABS는 단일건물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지분에 투자하는 리츠(REITS)와 차이가 있으며, 리츠나 부동산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이 아닌 중소형 빌딩에 주력하는 것이 특징
- 투자자 예탁금은 카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하나은행이 신탁방식으로 관리
- 미국 디지털증권사 Robinhood는 주식과 ETF를 최소 1달러 또는 백만분의 일 (1/1,000,000)주 단위로 구매할 수 있는 Fractional Shares 서비스를 제공
 - 시가총액 2,500만달러 이상, 주당가격 1달러 이상인 주식에 대해서 분할매수할 수 있으며, 6월 기준 약 7,000여개의 주식과 ETF 종목이 서비스 대상
 - 거래 수수료가 없으며 20~30대의 밀레니얼 세대와 소액투자자가 주요 대상 고객
 - 고객 타겟팅 전략의 결과, 2020.6월 기준 Robinhood의 사용자 1,300만명의 평균 나이는 31세, 평균 계좌잔액은 1,000~5,000달러 수준⁴⁾

■ [③장외 주식거래 플랫폼] 비상장(장외)주식 거래는 절차가 복잡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으나,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투자자의 접근성을 확대

- 핀테크업체 두나무와 삼성증권은 국내 최초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출시하여 기존의 제도권 장외주식시장이나 사설 거래시장의 한계를 극복⁵⁾
 - 국내 유일한 제도권 장외주식시장인 금융투자협회의 ‘K-OTC’는 검증된 비상장기업만이 등록⁶⁾할 수 있어 안정성이 높으나, 전체 종목 수가 136개(2020.10월말 기준)로 제한적이며 2015년(133개) 이후 변동된 종목이 소수에 불과
 - 사설 중개사이트는 판매자, 매수자 간에 개별적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주식인수도 절차가 까다롭고, 신원확인, 실물주식 보유여부 확인 등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어 신뢰성 확보가 어려움

2) 2019.1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3) Digital Asset Backed Security로 임대수익, 매매차익, 처분수익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진 수익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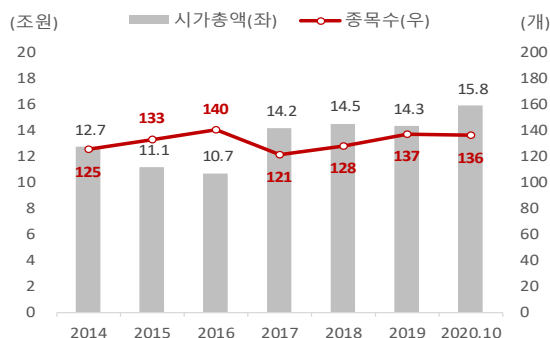
4)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국내외 디지털 증권사 현황과 시사점’ (2020.10.08.) 참조

5) 2020.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6)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매출 5억원 이상, 적정 감사의견, 주식양도에 대한 정관 제약이 없을 것 등의 자본과 매출 요건을 갖춘 기업만이 등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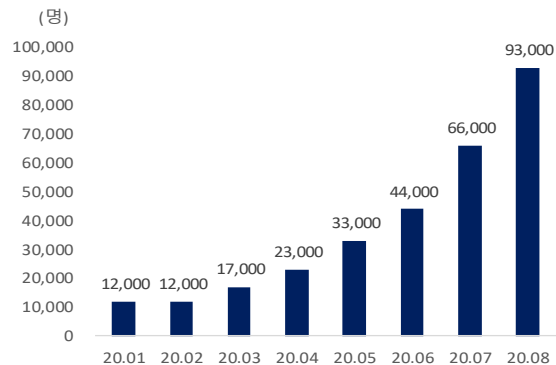
-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는 삼성증권의 거래시스템을 통해 4,912개⁷⁾ 기업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고 개별 기업의 재무상태, 신용 분석, 최근 이슈 등 다양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어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 10월 말 기준 가입자수는 약 20만명이며,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월 12,000명에서 8월 93,000명으로 급증

K-OTC 종목수 및 시가총액



자료: 금융투자협회 K-OTC

증권플러스 비상장 월간활성이용자수



자료: 두나무

- 미국 디지털증권사 TD Ameritrade는 전자거래 통합플랫폼에서 20,000여개에 달하는 장외주식 거래를 지원
 - 미국 장외주식은 제도권 시장인 OTCBB(Over-the-counter Bulletin Board)와 사설 거래소인 Pink Sheet⁸⁾에서 거래되고 있음
 - * OTCBB는 금융산업규제당국(FINRA)이 주관하기 때문에 등록된 기업들은 SEC 등록요건, 주기적 재무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하나, Pink Sheet는 사설기관인 OTC Markets에서 운영하며 별도의 등록요건이나 공시 의무가 없음
 - * * 2020.10월 말 기준 OTCBB 종목수는 10,704개, Pink Sheet 종목수는 11,543개
 - TD Ameritrade는 전자거래 플랫폼 ‘thinkorswim’에서 OTCBB와 Pink Sheet의 모든 종목을 상장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편리한 거래 프로세스, 초보자도 사용하기 쉬운 UX 등으로 우수한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음
 - * Investopedia, Stockbrokers, The Balance 등에서 2020년 Best 장외주식거래 플랫폼으로 선정

■ [④가상화폐 투자 관련 플랫폼] 통합 정보공시 플랫폼, 초보자용 투자 교육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지식과 관심을 가진 소수의 투자자에게 집중되었던 가상화폐 투자를 다수의 대중에게로 확장

7) 2020년 10월말 기준

8) 장외시장에서 주식거래 시 중개인, 딜러의 매매호가 기록되는 전표 색깔(핑크색)에서 유래

- 핀테크 업체 크로스앵글은 산재되어 있는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공시 플랫폼 ‘쟁글’을 출시
 - 국내에서 가상화폐 투자⁹⁾가 이루어지는 거래소는 200개 이상이며, 거래소마다 화폐 가치나 공개된 정보가 상이하고, 공시된 내용에도 통일된 기준이나 원칙이 부재
 - 쟁글은 정보 실사와 사후 검증, 기업에 대한 양적·질적 평가, 신용도 평가 등을 수행하여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을 낮추고 공시의 신뢰성을 제고
 - * 2020.10월말 기준 60개 거래소와 제휴 파트너십을 맺고 366개 가상화폐 프로젝트를 공시
- 글로벌 핀테크 B21¹⁰⁾은 초보 투자자를 겨냥한 가상화폐 전문 모바일 자산관리 플랫폼을 제공하고,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제공
 - 한 개의 계정에서 달러, 파운드, 유로 등 현지 화폐로 다양한 암호화폐에 분산투자할 수 있고, UI가 직관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초보자와 경험많은 투자자 모두 사용이 용이함
 - * 65개 국가에서 서비스 제공 중
 - 초보자용 교육 애플리케이션 ‘B21-life’는 일반 투자자에게 가상화폐 기술, 용어, 투자 방법 등을 교육하고 정제된 시장 뉴스와 정보를 제공

3. 시사점

■ 잔돈금융, 소액투자 상품, 장외거래 플랫폼 등 디지털을 활용한 혁신상품이 등장하는 가운데, 우리금융그룹은 신규 상품·서비스 개발 노력을 그룹 차원에서 확대 중

- 2020년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디노랩’을 기존 은행 중심에서 지주 컨트롤타워 체제로 개편하면서 전 계열사의 참여가 확대
 - 2020.6월 15개의 입주기업을 선발하였으며, 그 중 ‘펀드블록글로벌’은 우리자산신탁, 우리글로벌자산운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업용 부동산 유동화 플랫폼을 개발 중

9)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방법은 암호를 해독해서 얻는 채굴(mining)과 거래소에서 채굴된 가상화폐 구입하는 방법 두가지가 존재하며, 발행량이 점차 줄어드는 채굴은 최근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거래소를 통해 매매

10) 미국, 인도의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설립한 업체로 유럽 지브롤터(영국령)에 본사 위치

- 국내외 사례에서 디지털 신상품을 통해 고객층을 확장하고 새로운 투자영역을 개척한 것처럼, 우리금융그룹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적극 발굴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